

# 近百年 廣州語 正反疑問文의 變化樣相

—J. Dyer Ball의 教科書를 중심으로

趙恩挺\*

---

## ◁ 목 차 ▷

- I. 緒論
  - II. 「有冇」正反疑問文의 變化  
: 「有~冇」→「有冇~」
  - III. 非完료형 正反疑問文의 變化
    - 1. 「A~唔A」→「A唔A~」
    - 2. 「A~唔」→「A唔A~」
  - IV. 完료형 正反疑問文의 變化
    - 1. 「A~唔曾」→「A~未」
    - 2. 「A~未曾」→「A~未」
  - V. 結論
- 

## I. 緒論

廣州語는 漢語 七大方言의 하나인 粵方言 (혹은 粵語) 의 代表 言語로, 漢語 方言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sup>1)</sup>. 粵方言은 중국 南方地域에서 사용하는 방언으로 그 사용범위는 廣東省 中部, 北部, 西部 그리고 廣西省 대부분 지역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하다. 이 외에도 해외에 거주하는 화교들 역시 粵方言을 사용하고 있다. 전세계에서 粵方言을 사용하는 인구는 대략 7000만 정도 되므로, 粵方言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방언 중에서 사용하는 인구가 가장 많은 방언중의 하나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sup>2)</sup>

J. Dyer Ball (1847-1919) 은 廣州에서 태어난 英國 출신의 漢學者로 中國의

---

\* 淑明女大 中文科 講師

1) 參見李新魁·黃家敦·施其生·麥 紘·陳定方, 《廣州方言研究》, (廣東: 廣東人民出版社, 1995年 6月), p. 前頁1.

2) 同註1, p. 2. 參見李新魁, 《廣東的方言》, (廣東: 廣東人民出版社, 1994年 10月), p. 30.

여러 方言에 능통하였으며, 홍콩 고등법원 (在香港英國最高法院)의 통역관으로 재직하며 35년 동안 영국 정부를 위해 봉사하였다.<sup>3)</sup> 그는 5권의 廣州語 著作을 출판하였는데 그 다섯 권은 다음과 같다: 一、Cantonese Made Easy; 二、How to Speak Cantonese; 三、Readings in Cantonese Colloquial; 四、The Cantonese Made Easy Vocabulary; 五、Kelly and Walsh's English-Cantonese Handbook. 그 중 본 논문에서는 J. Dyer Ball의 두 권의 교과서, 즉 Cantonese Made Easy (1888) 와 How to Speak Cantonese (1912)<sup>4)</sup>를 위주로, 기타 百年前과 五十年前의 教科書를 參考로 하여<sup>5)</sup> 近百年 廣州語 正反疑問文의 變化樣相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본문에서 百年前과 五十年前 廣州語는 당시의 교과서를 근거로 하고 있고, 현대 廣州語는 1980년대 이후 출생한 이십대 초반의 청년층이 사용하는 廣州語를 근거로 하고 있다.

正反疑問文은 疑問文의 일종으로 긍정과 부정 두 가지를 중첩해 의문을 제기하는 형식인데, 대답을 할 때는 긍정이나 부정 중에 한가지 유형만 선택하게 된다. 正反疑問文은 긍정과 부정을 반복해서 물어보는 疑問文이기 때문에 또한 反復疑問文이라고도 한다. 百年前 廣州語와 現代 廣州語의 正反疑問文은 그 긍정과 부정의 중첩방식이 서로 조금씩 다른데 본문에서는 이 正反疑問文의 百여년동안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다.

3) 參見張洪年, 〈早期粵語中的變調現象〉, 《方言》2000年 第4期, (2000年 11月 24日), pp. 299. 中國社會科學院近代史研究所翻譯室, 《近代來華外國人名辭典》,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1年 12月), p. 24

4) 이 두 권의 주된 형식은 두 사람이 주고받는 대화로, 일상 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家庭生活, 親屬關係, 學校生活, 氣候, 買賣, 宗教, 航海 등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Cantonese Made Easy는 비교적 짧은 대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How to Speak Cantonese는 짧은 대화부터 비교적 긴 대화까지 다양한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Cantonese Made Easy에 비해 내용도 더 풍부하고 생동적이다.

Cantonese Made Easy와 How to Speak Cantonese의 體例와 目次는 拙著 《廣州話百年來的同業變遷 - 以J. Dyer Ball的廣州話教科書爲線索》, p. 43-52참조.

5) ① S. W. Bonney (1853) Phrases in the Canton Colloquial Dialect. Canton.  
 ② A. A. Fulton (1888) Progressive and Idiomatic Sentences in Cantonese Colloquial. Shanghai: American Presbyterian Mission Press.  
 ③ O. F. Wisner (1918) Beginning Cantonese 《教話指南》. Canton: China Baptist Publication Society.  
 ④ Chan Yeung Kwong (1947) Everybody's Cantonese. Hongkong: The Man Sa ng Printers.

## II. 「有冇」正反疑問文的 變化

: 「有~冇」→「有冇~」<sup>6)</sup>

廣州語의 「冇」는 현대 표준 중국어의 「沒有」에 해당한다. 「冇」의 本字는 「無」로 陽平調에 해당하지만 「有」의 영향을 받아 陽上調로 읽힌다. 陳伯輝는 〈粵方言音系的特點與考本字的聯繫〉에서 “有冇에서의 ‘冇’字는 [ mou<sup>4</sup> ]로 읽는데, 원래는 方音에서 나름대로 창조한 글자로 실제 글자는 ‘無’字이다. 《廣韻, 虞韻》은 ‘武夫切’이며 [ mou<sup>4</sup> ]로 읽는다. 이 글자가 上聲으로 변한 이유는 아마도 강하게 들리게 하기 위한 것인데, 왜냐하면 ‘無’字는 원래 陽平調에 속하는 것으로 어조가 비교적 가라앉는 듯한 느낌을 주는 데다 魚, 虞, 模 諸韻의 글자들이 비교적 약하게 들리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아마도 ‘有’字의 영향 때문일 것인데, ‘有’가 上聲이므로 ‘無’역시 ‘有’처럼 上聲으로 변했을 것이다.”<sup>7)</sup> 라고 하였다. 李如龍도 〈廣州話常用詞裡的幾種字音變讀〉에서 역시 “廣州語에서는 ‘沒有’를 ‘無’라고 하는데 이것은 古漢語와 南方의 여러 方言들에서 흔히 보이는 현상으로 讀音은 [ mou<sup>4</sup> ]로 읽어야 한다. 微母의 虞韻을 [ mou ]로 읽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聲調는 원래의 陽平이 아닌 陽上으로 변했는데 이는 분명히 ‘有’를 [ jeu<sup>4</sup> ]로 읽는 것에서 類推했을 것이다. 그리하여 聲調의 변함으로 인해 會意字인 ‘冇’를 따로 만들어 냈을 것이다”<sup>8)</sup>

6) 본 논문의 II, III, IV장에서는 모든 항목에 예문을 들어 설명하였는데, 한 항목에 대한 예문은 모두 4가지로 다음과 같다:

첫째 예문 - 百年前 혹은 五十年前 廣州語

둘째 예문 - 現代 廣州語

셋째 예문 - 現代 標準 中國語

넷째 예문 - 韓國語 翻譯

그리고 첫째 예문 중에서 J. Dyer Ball의 교과서에 속하는 예문일 경우에는 예문 뒤에 로마자와 숫자를 써서 教科書의 이름, 課, 그리고 문장의 배열번호 (혹은 페이지 수) 를 표시하였다. 즉,

Cantonese Made Easy - Lesson 12의 18번째 문장 → E-L 12-18

Cantonese Made Easy - Grammar의 93페이지의 내용 → E-G 93

How to Speak Cantonese - Lesson 3의 27번째 문장 → S-L 3-27

How to Speak Cantonese - Conversation 46의 31번째 문장 → S-C 46-31

7) 陳伯輝先生說: 「有冇之‘冇’字, 音[mou<sup>4</sup>], 原係方言自造字, 實乃「無」字. 《廣韻, 虞韻》: 「武夫切」[mou<sup>4</sup>]. 其所以變上, 可能是有加強的作用, 因「無」字原屬陽平調, 調子較為低沉, 而且魚虞模諸韻的字音亦較弱. 又可能是受「有」字的影響, 「有」爲上聲, 故「無」亦隨而變上.」陳伯輝, 〈粵方言音系的特點與考本字的聯繫〉, 《第五屆國際粵方言研討會論文集》, (廣東: 暨南大學出版社1997年7月), p. 57.

8) 李如龍先生也說: 「廣州話管「沒有」說「無」, 這是古漢語和南方諸方言的常見說法. 但讀音爲[mou<sup>4</sup>]. 微母虞韻讀[mou]是常例, 聲調本應是陽平, 變讀爲陽上, 顯然是「有」讀[jeu<sup>4</sup>]的類推, 大概因爲聲調變了, 因而另造會意字「冇」.」見李如龍〈廣州話常用詞裡的幾種字音變讀〉, 《第五屆國際粵方言研討會論文集》, (廣東: 暨南大學出版社1997年7月), p. 21. 又見於〈漢語方的比較研究〉, (北京: 商務印書館, 2001年6月), p. 296.

라고 말하였다. '有'를 陽平調가 아닌 陽上調로 읽는 것은 變調現象이 아니라 '有'와 같은 聲調로 읽는 '同調' 현상의 결과이다.

긍정과 부정의 중첩형식인 「有有」, 正反疑問文은, 百年前 廣州語에서는「有」와「有」가 분리되어 있는 「有~有」, 즉「有-NP-有」혹은 「有-VP-有」 형식으로, 現代 廣州語에서는「有」와「有」가 나란히 연결되어 있는「有有~」, 즉 「有有-NP」혹은 「有有-VP」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면 :

- (1) 有牛奶否 oY · (E-L 1-15)  
有牛奶啊?  
有沒有牛奶啊?  
(우유 있어요?)
- (2) 你借借俾佢有呀(S-C 49-26)  
你借借畀佢啊?  
你有沒有借給他呢?  
(너 그 사람한테 빌려줬나?)

(1)은 명사와 결합된 「有有」正反疑問文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 첫 번째 예문은 「有-NP-有」형식이고, 두 번째 예문은 「有有-NP」형식이다. (2)는 동사구와 연결되어 있는 「有有」正反疑問文으로, 그 중 첫 번째 예문은 「有-VP-有」형식이고, 두 번째 예문은 「有有-VP」형식이다. 명사구와 결합되어 있는 「有有」正反疑問文은 소유를 나타내고, 동사구와 결합되어 있는 「有有」正反疑問文은 과거시제를 나타낸다. 百年前 기타 廣州語 著作에서도 이러한 현상을 찾아볼 수 있다:

- (3) 呢處有荷蘭薯否 (Bonney1853 : 75)  
呢處有有薯薯呢?  
這裡有沒有薯薯呢?  
(여기 고구마 있어요?)
- (4) 佢昨日有來無呀 (Bonney1853 : 75)  
佢琴日/尋日/有有黎啊?  
他昨天有沒有來過呢?  
(그 사람 어제 왔었나요?)

(3)의 첫 번째 예문은 「有-NP-有」, 두 번째 예문은 「有有-NP」형식이고, (4)의 첫 번째 예문은 「有-VP-有」, 두 번째 예문은 「有有-VP」형식이다. Bonney의 教科書에서는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有~有」가 아닌 「有~無」형식의 正反疑問文이 나타나는데, 「無」역시 「沒有」의 뜻을 지닌 否定詞이므로 「有~無」는 「有~有」와 같

은 「有冇」正反疑問文의 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1850년대의「有冇」正反疑問文은 「有~冇」와 「有~無」의 두가지 유형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겠다.

- (5) 你有刀冇呢 (Fulton1888 : 5)  
 你有冇刀啊?  
 你有沒有刀子呢?  
 (너 칼을 가지고 있니?)
- (6) 你有冇入到佢屋冇呢 (Fulton1888 : 10)  
 你有冇入到佢屋企呢?  
 你有沒有進去他的家呢?  
 (너 그 사람 집에 들어갔었니?)
- (7) 佢有冇書呢 (Wisner1918 : 3)  
 佢有冇書啊?  
 他有沒有書呢?  
 (그 사람은 책을 가지고 있니?)
- (8) 你有冇讀書呢 (Wisner1918 : 2)  
 你有冇讀書啊?  
 你有沒有讀書啊?  
 (너 책을 읽었니?)

百年前의 廣州語 著作인 Fulton과 Wisner의 教科書에서도 Ball과 마찬가지로 「有-NP-冇」와 「有-VP-冇」의 형식이 사용되었다. 그렇지만 五十年前의 廣州語 教科書에서는 이와 달리 「有-NP-冇」와 「有冇-NP」, 「有-VP-冇」와 「有冇-VP」의 유형이 함께 사용되었다. 예를 들면 :

- (9) 冇冇人 (Type A) (Chan1947 : 1)  
 冇冇人?  
 有沒有人?  
 (누가 있어요?)
- (10) 冇冇人 (Type B) (Chan1947 : 1)  
 冇冇人?  
 有沒有人?  
 (누가 있어요?)
- (11) 冇冇人o黎 (Type A) (Chan1947 : 6)  
 冇冇人o黎?  
 有沒有人來?  
 (누가 왔나요?)
- (12) 冇人o黎冇 (Type B) (Chan1947 : 6)  
 冇人o黎?

有沒有人來?  
(누가 왔나요?)

Chan Yeung Kwong (陳陽光) 이 「Notes」(註釋) 에서 말하기를:

A 타입과 B타입은 互換이 가능하다. 비교적 긴 疑問文에서는 동사와 否定詞를 나란히 연결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A타입 참조) 疑問의 성격을 잃지 않게 된다. 否定詞를 문장의 맨 끝에 두는 경우는 B타입에 속하는데 짧은 문장에 적합하다. (Type A and Type B are interchangeable. In long interrogative sentences put the verb and its negative form immediately together (See Type A) so that the force of interrogation may not be lost. A question with its negative at the end is grouped into Type B. This Type is good for short interrogative sentences.)<sup>9)</sup>

위의 예문 (9)와 (11) 은 A타입에 속하고, (10)과 (12)는 B타입에 속한다. 「有右」正反疑問文은 1850년대에 「有~右」와 「有~無」의 두 가지 유형으로 사용되었으나, 1880년대에 이르러서는 「有~無」가 도태되어 「有~右」한가지 유형만 사용되었다. 그러다가 1940년대, 즉 五十年前에는 「有右~」의 형식이 증가되어 「有~右」와 「有右~」두 가지 유형이 사용되었고, 現代 廣州語에서는 「有~右」가 도태되어 「有右~」한가지 유형만 남게 되었다.

「有」와 「右」가 분리되어 있는 「有~右」형식이 「有右~」로 변하게 된 이유는 陳陽光이 말한바와 같이 긍정과 부정이 나란히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 疑問文의 성격을 더 강하게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인 듯 한데, 이러한 경우에 話者는 훨씬 더 疑問文의 성격을 쉽게 전달할 수 있고, 聽者 역시 疑問文의 성격을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有右」正反疑問文의 百여년동안의 變化는 다음과 같다.

1850年代 →	1880~1910年代 →	1940年代 →	現代
有~無、	有~右	有~右、	有右~
有~右		有右~	

百年前과 五十年前 廣州語는 당시의 교과서를 근거로 하고 있고, 現代 廣州語는

9) Chan Yeung Kwong, *Everybody's cantonese*, Hongkong: The Man Sang Printers. 1947. p.7

이십대 초반의 청년층이 사용하는 廣州語를 근거로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現代 廣州語에서는 「有冇~」형식 하나만을 언급하였는데, 廣州 지역의 청년층과 중년층은 긍정과 부정이 나란히 연결된 「有冇~」의 형식만을 사용하고 노년층은 긍정과 부정이 분리된 「有~冇」의 형식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본다면 「有~冇」형식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 Ⅲ. 非完료형 正反疑問文의 變化

現代 廣州語에는 非完료형 「A唔A~」 正反疑問文이 있는데, 이는 중복된 謂語 사이에 否定副詞 「唔」을 끼워 넣는 형식의 의문문이다. 이 의문문은 백년 전에는 「A~唔A」와 「A~唔」의 두 가지 형식을 취했으나 現代 廣州語에서는 「A唔A~」의 한가지 형식으로만 변하게 되었다. 즉, 百年前에는 「VP-唔-V」 혹은 「VP-唔」으로 사용되었던 것이 현대에는 「V-唔-VP」형식으로 바뀌어 사용하게 되었다. Ball과 其他 百年前 教科書들에서 이런 형식의 疑問文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먼저 「A~唔A」 正反疑問文을 살펴보자.

#### 1. 「A~唔A」→「A唔A~」

(13) 係~唔係 → 係唔係~ (是不是~)

例1) 呢間係唔係你呢? (E-L 12-1)

呢間係唔係你姑呢?

這棟是不是你姑呢?

(여기가 비구니들이 거주하는 암자인가요?)

「是不是~」라는 뜻의 正反疑問文은, Ball의 教科書에서는 「係~唔係」로 現代 廣州語에서는 「係唔係~」로 사용되었다. 百年前 기타 廣州語 著作들에서도 이러한 현상을 찾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例2) 呢件衫係佢o既唔係呢 (Fulton1888:1)

呢件衫係唔係佢o既呢?

這件衣服是不是他的?

(이 옷 그 사람 건가요?)

例3) 佢係你o既親戚唔係呢 (Wisner1918:24)

佢係唔係你o既親戚呢?

他是不是你的親戚?

(그 사람 너희 친척이니?)

「係唔係」이외에 다른 예를 살펴보자.

(14) 飲~唔飲 → 飲唔飲~ (喝不喝~)

例) 佢飲酒唔飲呀· (E-L 11-25)

佢飲唔飲酒啊?

他喝不喝酒?

(그 사람 술 마시니?)

(15) 夠~唔夠 → 夠唔夠~ (夠不夠~)

例) 昨晚個盞燈唔燒得好<sub>ㄟ</sub>夠油唔夠呢<sub>ㄟ</sub>(S-C 43-28)

琴晚/尋晚/o個盞燈燒得唔好。夠唔夠油呢?

昨天晚上那盞燈燒得不好。油夠不夠呢?

(어젯밤에 그 등은 잘 타지 않더구나. 기름은 충분히 들어있니?)

(14)와 (15)는 각각 「喝不喝~」와 「夠不夠~」라는 뜻의 正反疑問文으로, Ball의 教科書에서는 「飲~唔飲」과 「夠~唔夠」, 즉 「VP-唔-V」의 형태로 썼었고, 現代 廣州語에서는 「飲唔飲~」과 「夠唔夠~」, 즉 「V-唔-VP」의 형태로 썼었다.

(16) 識~唔識 → 識唔識~ (會不會~)

例1) 你識字唔識oY· (E-L 5-4)

你識唔識字啊?

你識字嗎?

(너 글을 읽을 줄 아니?)

예문 (16)은 「會不會~」라는 뜻을 지닌 正反疑問文이다. 廣州語에서 「識」은 「할 줄 알다(會)」와 「누구를 알다(認識)」라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예문 (16)은 「할 줄 알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Ball의 教科書에서는 「唔識」이 문장 뒤에 놓인 「識~唔識」(「VP-唔-V」)의 형태로 나타나고, 現代 廣州語에서는 「識」과 「唔識」이 나란히 연결된 「識唔識~」(「V-唔-VP」)의 형태로 나타난다. 百年前 기타 廣州語 教科書들에서도 이러한 현상을 찾아볼 수 있다.

例2) 你識字唔識呀 (Bonney1853 : 59)

你識唔識字啊?

你識字嗎?

(너 글을 읽을 줄 아니?)

例3) 就至經過個人你識佢唔識呢 (Fulton1888 : 100)



o岩o岩經過o個個人你識唔識佢呢?  
 剛剛經過的那個人你認不認得他?  
 (방금 지나간 그 사람 너 누군지 아니?)

Bonney와 Fulton 역시 Ball과 마찬가지로 「VP-唔-V」의 형식을 취하였다.

(17) 噲~唔噲 → 識唔識~ (會不會~)

例1) 你識識花語噲呢(S-C 38-21)

你識唔識繡花呢?

你會不會繡繡?

(너 수놓을 줄 아니?)

百年前 廣州語에서의 「噲」는 「識」과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識」은 「할 수 있다」라는 뜻 이외에 「누구를 알다」라는 뜻도 있지만 「噲」는 「할 수 있다」라는 뜻 한 가지 밖에 없다. 百年前的 「噲」는 現代 廣州語에서는 도태되어 「識」으로 대체된다. 그렇기 때문에 Ball 教科書의 「噲~唔噲」는 現代 廣州語에서 「識唔識~」의 형태로 바뀌게 된다. 百年前 기타 廣州語 教科書들에서도 이러한 「噲~唔噲」의 형태를 찾아 볼 수 있다.

例2) 你識寫字唔噲呢 (Fulton1888 : 26)

你識唔識寫字呢?

你會不會寫字呢?

(너 글씨 쓸 줄 아니?)

例3) 你識做唔噲呢 (Wisner1918 : 22)

你識唔識做呢?

你會不會做呢?

(너 할 줄 아니?)

Fulton과 Wisner의 教科書에서도 Ball 과 마찬가지로 「噲~唔噲」(「VP-唔-V」)의 형식으로 쓰였다.

(18) 使~唔使 → 使唔使~ (要不要~)

例1) 使唔使等呀(S-C 16-30)

使唔使等啊?

要不要等?

(기다려야 하나요?)

「要不要~」라는 뜻의 正反疑問文은 Ball의 教科書에서는 「使~唔使」로, 現代

廣州語에서는 「使唔使~」로 사용되었다. 기타 百年前 廣州語 教科書에서도 이러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 例2) 你使請火頭唔使呢 (Wisner1918:14)  
 你使唔使請大廚呢?  
 你要不要請主廚呢?  
 (너 주방장을 모셔 올 거니?)

Wisner의 教科書에서도 역시 「VP-唔-V」의 형태로 사용하였다.

- (19) 知~唔知 → 知唔知~ (知不知道~)

例) 你知邊個打你唔知呀 (E-G 100)  
 你知唔知邊個打你啊?  
 你知不知道誰打你?  
 (너 누가 널 때렸는지 알고 있니?)

- (20) 准~唔准 → 准唔准~ (准不准~)

例) 大人准我地去廟斬雞頭唔准呢 (E-L 14-24)  
 大人准唔准我o地去廟斬雞頭呢?  
 大人准不准許我們去寺廟斬雞頭(殺誓)呢?  
 (주인님께서 우리가 닭의 머리를 잘라 고사 지내는 것을 허락 하십니까?)

(19)는 「知不知道~」라는 뜻의, (20)은 「准不准~」이라는 뜻의 正反疑問文이다. Ball의 教科書에서는 「VP-唔-V」인 「知~唔知」와 「准~唔准」의 형태로, 現代 廣州語에서는 「V-唔-VP」인 「知唔知~」와 「准不准~」의 형태로 사용되었다. 참고로 「우리들」이라는 뜻의 代詞는 百年前 廣州語에서는 「我地」로, 現代 廣州語에서는 「口」偏旁이 붙은 「我o地」로 사용하였다.

- (21) 中意~唔中意 → 中(意)唔中意~ (喜不喜歡~)

例) 你中意呢o的唔中意呀· (E-L 5-16)  
 你中(意)唔中意呢o的啊?  
 你喜不喜歡這些?  
 (너 이것들 좋아하니?)

Ball 教科書의 「中意~唔中意」는 「喜不喜歡~」이라는 뜻으로, 現代 廣州語에서는 「中意唔中意~」혹은 「中唔中意~」로 사용되는데 後者が 더 보편적으로 사용된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百年前 廣州語에서는 「VP-唔-V」형식을, 現代 廣州語에서는 「V-唔-VP」형식을 취하였으나, 五十年前 廣州語에서는 「VP-唔-V」와 「V-唔-VP」 두 가지 형식을 모두 취하게 된다. 즉,

- (22) 你識呢個人唔識 (Chan1947: 22)  
 你識唔識呢個人呢?  
 你認不認識這個人呢?  
 (너 이 사람 아니?)
- (23) 你識唔識呢個人呢 (Chan1947: 20)  
 你識唔識呢個人呢?  
 你認不認識這個人呢?  
 (너 이 사람 아니?)

(22)와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Chan의 教科書에서는 「識~唔識」과 「識唔識~」의 두 가지 유형이 모두 쓰였다. 또 다른 예를 살펴보면,

- (24) 你食烟唔食呀 (Chan1947: 125)  
 你食唔食煙啊?  
 你抽不抽煙啊?  
 (너 담배 피니?)
- (25) 你要錢唔要呢 (Chan1947: 30)  
 你要唔要錢呢?  
 你要不要錢呢?  
 (너 돈이 필요하니?)
- (26) 使唔使錢呢 (Chan1947: 37)  
 使唔使錢呢?  
 要不要錢呢?  
 (돈을 내야 하나요?)

廣州語에서의 「食」은 「먹다」라는 뜻 이외에 「마시다」, 「(담배를) 피다」라는 뜻이 있는데 (24)에서의 「食」은 「담배를 피다」라는 뜻에 해당한다. (24)와 (25)의 첫 번째 예문은 「VP-唔-V」형식인 「食~唔食」과 「要~唔要」으로 쓰였고, (26)의 첫 번째 예문은 「V-唔-VP」형식인 「使唔使~」로 쓰였다. 이를 통해 五十年前의 正反疑問文은 「A~唔A」와 「A唔A~」, 즉 「VP-唔-V」와 「V-唔-VP」 두 가지 유형이 함께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A~唔A」 正反疑問文의 百여년동안의 變化는 다음과 같다.



찾아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 (30) 你會寫唐字無 (Bonney1853: 60)  
 你識唔識寫中文?  
 你會不會寫中文?  
 (너 중국어 쓸 줄 아니?)

앞의 II장에서 말한 「有冇」正反疑問文 중에서, Bonney의 教科書에는 「有~冇」뿐만 아니라 「冇」를 대신해 「無」를 사용하는 「有~無」의 형태도 나타난다고 했다. (30)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否定詞 「唔」대신 「無」를 사용하는 「會~無」 형식을 취하고 있다. Bonney의 教科書에서는 「會不會~」라는 뜻의 正反疑問文이 비록 「會~無」형식 한 가지 뿐이지만, 앞에서 얘기한 「有~冇」와 「有~無」로 미루어 보아 1850년대에는 「會~無」뿐만 아니라 「會~唔」의 형식도 사용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 (31) 兩枝筆係處唔呢 (Fulton1888: 3)  
 兩枝筆o係唔o係處呢?  
 兩枝筆在不在這裡?  
 (연필 두 자루가 여기에 있니?)

「在不在~」라는 뜻의 正反疑問文은, Fulton에서는 「係~唔」으로, 現代 廣州語에서는 「o係唔o係~」로 썼었다. 廣州語에서의 「係」는 「~이다」라는 뜻으로 현대 표준 중국어의 「是」에 해당하고, 「o係」는 「~에 있다」라는 뜻으로 현대 표준 중국어의 「在」에 해당한다. (31)은 「~에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o係」로 써어져야 하나 첫 번째 예문에서는 「o係」가 아닌 「係」로 써어졌다. 이는 출판상의 오류라고 생각되는데, Fulton의 교과서에서 이를 제외한 다른 문장들은 모두 「o係」로 써어졌다<sup>10)</sup>.

- (32) 你要呢把遮唔呢 (Fulton1888: 24)  
 你要唔要呢把遮呢?  
 你要不要這把雨傘呢?  
 (너 이 우산 필요하니?)

10) 같은 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장을 예로 들면 :

① o欄書o係邊處 (그 책 어디 있니?)  
 ② 茶杯o係檯面處 (차잔은 탁자 위에 있어.)

- (33) 你<sup>得</sup>閒去影相唔呢 (Fulton1888 : 74)  
 你<sup>得</sup>閒去唔去影相呢?  
 你有空去不去照相呢?  
 (시간 날 땐 사진을 찍으러 가시나요?)
- (34) 你<sup>食</sup>牛油唔呢 (Wisner1918 : 7)  
 你<sup>食</sup>唔<sup>食</sup>牛油呢?  
 你吃不吃奶油呢?  
 (너 버터 먹니?)
- (35) 我<sup>話</sup>個<sup>做</sup>木師傅<sup>o</sup>係<sup>唔</sup>處唔呢 (Wisner1918 : 101)  
 我<sup>話</sup><sup>o</sup>個<sup>個</sup>抖木工人<sup>o</sup>係<sup>唔</sup><sup>o</sup>係<sup>處</sup>呢?  
 我說的那個木匠在不在這裡呢?  
 (내가 말한 그 목수 여기에 있니?)
- (36) 你<sup>明</sup>白我<sup>o</sup>既<sup>意</sup>思唔呢 (Wisner1918 : 23)  
 你<sup>明</sup>唔<sup>明</sup>白我<sup>o</sup>既<sup>意</sup>思啊?  
 你明不明白我的意思啊?  
 (너 내말 알아듣겠니?)

(32)부터 (36)까지의 예문들 역시 百年前의 「VP-唔」형식과 現代의 「V-唔-V P」형식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다.

百年前의 「A~唔」형식은, 五十年前에는「A~唔A」와 「A唔A~」형식으로 바뀌고 현대에 와서는 「A唔A~」형식 하나만 남게 되었다.

「A~唔」正反疑問文의 百여년동안의 발전 과정은 다음과 같다.

1850年代	→	1880~1910年代	→	1940年代	→	現代
A~無、		A~唔		A~唔A、		A唔A~
A~唔				A唔A~		

위에서 살펴본 바에서 알 수 있듯이, 백년전의 「A~唔」과 「A~唔A」가 오십 년 전에는 「A~唔A」、「A唔A~」로 바뀌고 현대에 와서는 「A唔A~」형식 하나만 남게 되었다. 백년전의 「A~唔」과 「A~唔A」중에서 현대에 「A~唔A」형태 한가지만 남게 된 이유는, 否定副詞 뒤에 謂語를 중복한 「A~唔A」형식이 문장 안에서 대칭구조를 이루어 否定副詞만 사용한 「A~唔」보다 의문의 성격을 좀 더 분명하게 나타내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非안료형 正反疑問文도 「有冇」正反疑問文과 마찬가지로 긍정과 부정이 분리된 「A~唔A」형식이 긍정과 부정이 나란히 연결된 「A唔A~」로 변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有冇」正反疑問文에서 말한 바와 같이 긍정과 부정이 나란히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 의문문의 성격을 더 쉽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百年前과 五十年前 廣州語는 당시의 교과서를 근거로 하고 있고, 現代 廣州語는 이십대 초반의 청년층이 사용하는 廣州語를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非완료형 正反疑問文도 「有冇」正反疑問文과 마찬가지로 現代 廣州語에서는 「A唔A~」형식 하나만을 언급하였다. 그렇지만 廣州 지역의 청년층과 중년층은 긍정과 부정이 나란히 연결된 「A唔A~」의 형식만을 사용하고 노년층은 긍정과 부정이 분리된 「A~唔A」형식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본다면, 「有~冇」와 마찬가지로 「A~唔A」형식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 본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Bonney 1853	Fulton 1888	Ball 1888, 1912	Wisner 1918	Chan 1947	現代 廣州語	現代 標準 中國語
有~冇 有~無	有~冇	有~冇	有~冇	有~冇 冇冇~	有冇~	有沒有~
	係~唔係	係~唔係	係~唔係		係唔係~	是不是~
		飲~唔飲			飲唔飲~	喝不喝~
		夠~唔夠			夠唔夠~	夠不夠~
識~唔識	識~唔識	識~唔識		識~唔識、 識唔識~	識唔識~	會不會~、 認不認識~
		使~唔使	使~唔使		使唔使~	要不要~
	噲~唔噲	噲~唔噲	噲~唔噲		識唔識~	會不會~
		知~唔知			知唔知~	知不知道~
		准~唔准			准唔准~	准不准~
		中意~唔 中意			中(意)唔中 意~	喜不喜歡~
				食~唔食	食唔食~	抽不抽(煙)~
				要~唔要	要唔要~	要不要~
				使唔使~	使唔使~	要不要~
		想~唔			想唔想~	想不想~
		見~唔			見唔見~	有沒有看到~
		中意~唔			中(意)唔中 意~	喜不喜歡~
會~無					識唔識~	會不會~
	係~唔		o係~唔		o係唔o係~	在不在~

	要~唔				要唔要~	要不要~
	去~唔				去唔去~	去不去~
			食~唔		食唔食~	吃不吃~
			明白~唔		明唔明白~	明不明白~

#### IV. 완료형 正反疑問文의 變化<sup>11)</sup>

百年前の 正反疑問文 「A~唔會」과 「A~未會」은 완료된 동작임을 묻는 의문문으로, 현대에 와서는 「A~未」로 바뀐다. 즉, 완료형 正反疑問文 「VP-唔會」과 「VP-未會」은 現代 廣州語에 와서 그 형식이 「VP-未」로 바뀌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百年前の 여러 廣州語 著作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먼저 「A~唔會」의 예를 살펴보자.

##### 1. 「A~唔會」 → 「A~未」

Ball의 教科書에 보이는 「VP-唔會」의 예는 다음과 같다.

- (37) 食飯唔會呀 · (E-L 1-6)  
 食o左飯未呀?  
 吃飯了沒? (밥 먹었니?)
- (38) 嫁o阻(or嫁)唔會o丫, (E-L 6-10)

11) 본 논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唔會」이나 「未會」이 문장의 말미에 놓이면 의문문을 구성하지만, 동사 앞에 놓이면 부정문을 구성하게 된다. 예를 들면:

- (1) 你唔會講o徙, (S-C 17-25)  
 你仲未講晒。  
 你還沒講完。(너 아직 얘기 다 안 했어.)
- (2) 你唔會讀過番書 (Bonney1853: 72)  
 你仲未讀過外文書。  
 你還沒讀過外文書。(넌 아직 외국어로 된 책을 읽어 본적이 없잖아.)
- (3) 考過兩三句, 未會入, 我大佬已經中學咯 · (E-L 15-19)  
 考過兩三次, 仲未入。我大佬已經中學咯。  
 考過兩三次, 還沒考上。但是我大哥已經考上了。  
 (시험을 두 세 번 봤는데 아직 붙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저희 형은 이미 합격했어요.)
- (4) 牛肉未曾落鹽 (Fulton1888: 14)  
 牛肉仲未落鹽。  
 牛肉還沒放鹽。(소고기에 아직 소금을 뿌리지 않았어요.)

참고로 百年前の 「唔會-VP」와 「未會-VP」는 五十年前에는 「未-VP」로, 現代에 와서는 「仲未-VP」로 바뀌었다.



- 嫁o左未呀?  
 嫁人了沒?  
 (시집 갔니?)
- (39) 啊 你係讀書人o卦? 考過試唔會呢 (E-L 15-18)  
 啊, 你係讀書人o卦。考過試未啊/呢/?  
 啊, 你是讀書人吧。考過試了沒有?  
 (선생님은 공부하는 분이시죠? 시험엔 합격하셨나요?)
- (40) 你去過九龍城唔會呢、(S-C 19-1)  
 你去過九龍城未啊?  
 你去過九龍城嗎?  
 (너 九龍城에 가봤니?)
- (41) 先生去過較場睇操兵唔會呢、(S-C 31-10)  
 先生去過訓練場睇過操兵未呢?  
 先生去訓練場看過士兵操練了沒有?  
 (선생님은 훈련소에 가서 병사들이 훈련하는 것을 보셨나요?)
- (42) 洗衣服佬撐衫翻o黎唔會呢、(S-C 42-21)  
 洗衫佬拾o左o的衫翻o黎未呢?  
 洗衣匠拿衣服回來了沒有?  
 (세탁하는 사람이 옷을 가져왔니?)

(37)부터 (42)까지의 예문에서 알 수 있듯이 완료된 동작임을 묻는 「VP-唔會」疑問文은 現代에 와서는 모두「VP-未」로 바뀌게 된다. 百年前의 其它 廣州語 著作들에서도 이러한 예들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 (43) 買菜唔會 (Bonney1853 : 63)  
 買o左菜未啊?  
 買菜了沒?  
 (야채 샀어?)
- (44) 你來廣東二十年唔會 (Bonney1853 : 86)  
 你o黎廣東二十年未啊?  
 你來廣東二十年了沒有?  
 (너 廣東에 온 지 20년 됐니?)
- (45) 你去過唔會 (Fulton1888 : 8)  
 你去過未啊?  
 你去過沒?  
 (너 가 본적 있니?)
- (46) 你預備唔會 (Fulton1888 : 46)  
 你預備/準備/好未啊?  
 你準備好了沒?

(준비 됐니?)

(47) 你食過牛尾唔會呢 (Wisner1918 : 14)

你食過牛尾未啊?

你吃過牛尾沒啊?

(너 소꼬리 먹어 봤니?)

(48) 你食飯唔會呢 (Wisner1918 : 20)

你食o左飯未呀?

你吃飯了沒?

(너 밥 먹었니?)

Bonney, Fulton, Wisner의 教科書에서도 Ball과 마찬가지로 「A~唔會」의 형태로 사용되었는데 現代에 와서는 모두 「A~未」로 바뀌었다.

이번에는 「A~未會」의 예를 살펴보기로 하자.

## 2. 「A~未曾」 → 「A~未」

百年前の 廣州語 著作들에서는 「A~未曾」이 「A~唔會」처럼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던 것 같지는 않다. Ball과 Fulton의 教科書에 나와있는 예들을 한 번 살펴보자.

(49) 管店呢 · o黎未曾呀 · (E-L 2-13)

管家呢? o黎o左未呀?

管家呢? 來了沒?

(집사는? 왔니?)

(50) 你入過花園未曾 (Fulton1888 : 10)

你入過花園未啊?

你進過花園沒有?

(너 꽃밭에 들어가 본적 있니?)

「VP-未曾」도 역시 완료된 동작임을 묻는 의문문인데, 現代에 와서는 「VP-唔會」과 마찬가지로 「VP-未」로 바뀌었다. 그런데 「VP-未」로 바뀐 시기는 아마도 현대가 아닌 五十年前부터였던 것 같다. Chan의 教科書에 나와 있는 예문들을 살펴보자.

(51) 佢番o黎未呢 (Chan 1947 : 32)

佢翻o黎未呢?

他回來了沒?

- (그 사람 돌아 왔니?)  
 (52) 你食阻飯未呀 (Chan 1947 : 78)  
 你食o左飯未啊?  
 你吃飯了沒?  
 (너 밥 먹었니?)

(51)과 (52) 모두 「VP-未」로 현대의 「VP-未」의 형식과 일치한다. 이를 통해 百年前의 「VP-唔會」과 「VP-未會」은 五十年前에 「VP-未」로 바뀌고, 現代에도 역시 「VP-未」의 형식으로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완료형 正反疑問文 「A~唔會」과 「A~未會」의 발전 과정은 다음과 같다.

百年前	五十年前	現代
A~唔會 →	A~未 →	A~未
A~未會 ↗		

五十年前과 現代의 「A~未」는 百年前의 「A~未會」에서 「會」이 생략된 형태라고 보여진다. 더군다나 「A~未」의 「未」는 현대 普通話의 완료형 正反疑問文 「A~沒」의 「沒」와 발음이 같기 때문에 普通話의 영향도 받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문에서는 「唔會」과 「未會」를 각각 분리하여 서술하였지만, 사실 「唔會」과 「未會」은 각기 독립된 형태가 아닌 같은 하나의 부류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왜냐하면 「未會」를 사용해 묻는 의문문에 「唔會」를 사용해 대답한다던가 「唔會」를 사용해 묻는 의문문에 「未會」를 사용해 대답하는 형식이 Ball의 教科書에 보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 (53) A: 你娶老婆未會呢 · (E-L 6-15)  
 你娶o左老婆未呢?  
 你娶了老婆沒?  
 (너 장가갔니?)  
 B: 未會(or唔會)娶咯 · (E-L 6-16)  
 仲未娶咯。  
 還沒娶咯。  
 (아직 안 갔어)  
 (54) A: 你入教唔會呀 · (E-L 12-16)  
 你入o左教未啊?  
 你入教了沒有?

- (너 종교 믿기 시작했니?)  
 B: 未會呀· (E-L 12-16)  
 仲未啊。  
 還沒啊。  
 (아니 아직)
- (55) A: 你上過山頂唔會呢、(S-C 20-1)  
 你上過山頂未呢?  
 你上過山頂嗎?  
 (너 산 정상까지 올라가 봤니?)  
 B: 未會呀、(S-C 20-2)  
 (仲)未啊。  
 還沒啊。  
 (아니 아직)

(53)에서는 「未會」의 형식으로 질문하고 「唔會」또는 「未會」의 형식으로 대답했고, (54)와 (55)에서는 「唔會」의 형식으로 질문하고 「未會」의 형식으로 대답했다. 이를 통해 「唔會」과 「未會」은 다른 두 가지 유형이 아닌 서로 같은 한가지 유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 본 내용으로 미루어 지난 百年동안의 正反疑問文의 변화는 다음과 같이 귀납할 수 있다.

	百年前		五十年前		現代
1.	(有~無) 有~冇	→	有~冇 有冇~	→	有冇~
2.	A~唔A  (A~無) A~唔	→	A~唔A A唔A~	→	A唔A~
3.	A~唔會 A~未會	→	A~未 ↗	→	A~未

## V. 結論

본문에서는 지난 百여년동안의 廣州語의 正反疑問文의 變化에 대해 살펴보았다. 「正反疑問文」은 일종의 選擇疑問文으로 百年前에는 세 가지 유형이 존재하였는데, 첫 번째는 「有~冇」 正反疑問文, 두 번째는 非完료형 正反疑問文인 「A~唔A」와

「A~唔」, 그리고 세 번째는 완료형 正反疑問文인 「A~唔會」과 「A~未會」이다. 그 중에서 「有~冇」는 五十年前에 「有冇~」의 형식이 증가되어 「有~冇」와 「有冇~」의 두 가지 형식이 사용되다가 현대에는 「有~冇」가 도태되어 「有冇~」 한가지 형식만 남게 되었고, 百年前의 「A~唔A」와 「A~唔」은 五十年前에 「A~唔」이 도태되고 「A唔A~」가 증가되어 「A~唔A」, 「A唔A~」 두 가지 형식으로 존재하다가 현대에는 「A唔A~」 한 가지 형식만 남게 되었다. 「A~唔會」과 「A~未會」은 五十年前에 「A~未」로 변하여 현대에 와서도 역시 「A~未」로 사용되고 있다.

「有冇」正反疑問文과 非완료형 正反疑問文의 경우, 긍정과 부정이 분리되어 있는 형식(즉, 「有~冇」와 「A~唔A」)에서 긍정과 부정이 나란히 연결되어 있는 형식(즉, 「有冇~」와 「A唔A~」)으로 변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陳陽光이 말한바와 같이 긍정과 부정이 나란히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 疑問文의 성격을 더 강하게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인 듯 한데, 이러한 경우에 話者는 疑問文의 성격을 쉽게 전달할 수 있고, 聽者 역시 疑問文의 성격을 훨씬 더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완료형 正反疑問文에서 백년전의 「A~唔會」과 「A~未會」이 五十年前과 現代에는 「A~未」의 형태로 바뀌게 되는데, 이 「A~未」는 「A~未會」에서 「會」이 생략된 형태라고 보여진다. 더군다나 「A~未」에서의 「未」는 현대 普通話의 완료형 正反疑問文 「A~沒」의 「沒」와 발음이 같으므로 普通話의 영향도 받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문에서 百年前과 五十年前 廣州語는 당시의 교과서를 근거로 하고 있고, 현대 廣州語는 1980년대 이후 출생한 이십대 초반의 청년층이 사용하는 廣州語를 근거로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층과 중년층, 그리고 노년층이 사용하는 語順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有冇」正反疑問文과 非완료형 正反疑問文의 경우, 廣州 지역에서는 청년층과 중년층은 긍정과 부정이 나란히 연결된 「有冇~」와 「A唔A~」의 형식만을 사용하고, 노년층은 긍정과 부정이 분리된 「有~冇」와 「A~唔A」의 형식도 사용한다. 특히 해외에 거주하는 화교들 중에는 중년층과 노년층이 모두 긍정과 부정이 분리된 「有~冇」와 「A~唔A」의 형식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한다. 본 논문은 廣州 지역의 청년층이 사용하는 廣州語를 근거로 하였기 때문에 「有冇~」와 「A唔A~」의 형식만을 언급하였으나 노년층이 사용하는 「有~冇」와 「A~唔A」의 형식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 【參考書目】

- 中國社會科學院近代史研究所翻譯室 《近代來華外國人名辭典》，中國社會科學出版社，北京，1981.12
- 方小燕 〈廣州話裡的疑問語氣詞〉，《方言》1996年第1期，56-60，1996.2.24  
〈廣州話裡的反復問句形式〉，《第五屆國際粵方言研討會論文集》，廣東：暨南大學出版社，180-184，1997.7
- 李新魁 《廣東的方言》，廣東人民出版社，廣東，1994.10
- 李新魁、黃家敦、施其生、麥 耘、陳定方 《廣州方言研究》，廣東人民出版社，廣東，1995.6
- 李如龍 〈廣州話常用詞裡的幾種字音變讀〉，《第五屆國際粵方言研討會論文集》，廣東：暨南大學出版社，19-22，1997.7
- 高華年 《廣州方言研究》，商務印書館，香港，1984.1
- 張洪年 《香港粵語語法的研究》，香港中文大學出版社，香港，1972.10  
〈早期粵語中的變調現象〉，《方言》2000年 第4期，299-312，2000.11.24
- 張雙慶、郭必之 〈香港粵方言反復問句的疊置現象〉，《中國東南部方言比較研究計劃第10屆國際研討會》提交論文，廣州，中山大學，2003.3
- 陳伯輝 〈粵方言音系的特點與考本字的聯繫〉，《第五屆國際粵方言研討會論文集》，廣東：暨南大學出版社，57-64，1997.7
- 陳萬成 〈近代粵語反復問句的演變及有關問題〉，《第一屆國際粵方言研討會論文集》，香港，現代教育研究社，165-177，1994
- 黃景湖 《漢語方言學》，廈門大學出版社，福建，1987.6
- 趙恩挺 《廣州話百年來的詞彙變遷 - 以 J. Dyer Ball 的廣州話教科書為線索 - 》，國立臺灣師範大學國文研究所博士論文，臺灣，2003.7
- S. W. Bonney *Phrases in the Canton Colloquial Dialect*. Canton. 1853
- A. A. Fulton *Progressive and Idiomatic Sentences in Cantonese Colloquial*. Shanghai: American Presbyterian Mission Press. 1888
- J. Dyer. Ball *Cantonese Made Easy*. Second edition. Hongkong: 'China mail' office (臺北成文出版社 1971年影印本). 1888  
*Readings in Cantonese Colloquial*, Hongkong: Kelly & Walsh, Ltd. 1894  
*The Cantonese Made Easy Vocabulary*. Third edition. Hongkong: Kelly & Walsh, Ltd. 1908  
*How to Speak Cantonese*. Fourth edition. Hongkong: Kelly & Walsh, Ltd. 1912  
*Cantonese Made Easy*. Fourth edition. Hongkong: Kelly & Walsh, Ltd. 1924  
*Kelly and Walsh's English-Cantonese Handbook*, Fifth edit

- ion. Hongkong: Kelly & Walsh, Ltd. 1927
- O. F. Wisner *Beginning Cantonese* 《教話指南》. Canton: China Baptist Publication Society. 1918
- Chan Yeung Kwong *Everybody's Cantonese*. Hongkong: The Man Sang Printers. (日本不二出版(株)1988年4月影印本, 波多野太郎編輯, 收錄於《中國文學語學資料集成第一篇(全四卷)》)1947
- Cheung, Hung-nin Samuel. 張洪年 The Interrogative Construction: (Re)-constructing Early Cantonese Grammar, *Sinitic Grammar: Synchronic and Diachronic Perspectives*, ed. By Hilary Chappell, 191-231.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中文提要】

正反疑問文是一種選擇疑問句, 用謂語以肯定否定相疊的方式提問, 就是在相同的項目裡選擇一項作肯定或否定的回答。

在百年前的廣州話裡, 正反問句共有三種類型: 一、「有~冇」正反問句; 二、「A~唔A」、「A~唔」正反問句; 三、「A~唔會」與「A~未曾」正反問句。百年前的「有~冇」, 在五十年前增加一個「有冇~」, 到了現代「有~冇」被淘汰, 只剩下「有冇~」一種形式。百年前的「A~唔A」與「A~唔」, 在五十年前「A~唔」被淘汰, 而增加了一個「A唔A~」, 所以有「A~唔A」與「A唔A~」二種, 到了現代「A~唔A」被淘汰, 只剩下「A唔A~」一種類型。百年前的「A~唔會」與「A~未曾」, 在五十年前變成「A~未」, 現代亦是「A~未」。

### 【主題語】

廣州語, 粵語, 正反疑問文, J. Dyer Ball, *Cantonese Made Easy, How to Speak Cantonese*